

장화 홍련

평안도 철산에 배무룡이라는 좌수를 지내던 사람이 있었다. 부부금실이 좋고 행복하였지만 자식이 없어서 고민이었다.

어느 날 하루는 배무룡의 부인이 꿈속에서 신선이 준 꽃 한 송이를 받은 후 며칠 후에 태기를 느꼈다 이후 예쁜 딸을 순산하니 이름을 장화라 하고, 2 년 후에 다시 득녀하니 홍련이라 이름 짓는다.

두 아이 모두 딸이라 섭섭하였지만 그 자색이 뛰어나서 부부는 자녀사랑에 극진했고 또한 행복했다.

하지만 장화가 5 세 그리고 홍련이 3 세 되는 해에 어머니 장씨가 병을 얻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 후 아버지 배 좌수는 허씨란 여자와 재혼하고 다시 삼형제를 낳는다. 배좌수는 아들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실 자식의 가련한 운명을 동정하여 슬퍼한다. 그러자 계모 허씨는 시기가 발동하여 흥계를 꾸며 모함한다. 이때 나약한 배좌수는 계모의 음모에 속아서 장쇠(맏아들)를 시켜 장화를 못에 빠뜨려 죽게 한다.

그 후 홍련은 장쇠를 통해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게 되었고 꿈속에 청조(靑鳥)의 안내로 유서 한 장을 남겨 놓고 연못에 투신자살한다.

이렇게 죽고 난 장화와 홍련의 영혼은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 원한을 아뢰기 위해 관청에 나타나니 부임하는 부사마다 첫날밤에 놀라 죽어, 철산 지방이 폐읍(弊邑)으로 변해간다.

이때 정동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철산 부사를 자원해 간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원귀가 녹색 치마 빨간 저고리를 입고 들어와 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한다.

부사는 다음날 배좌수 부부를 잡아들여서 사실을 밝혀내고 그 죄과를 실토하게 하고
홍녀(계모)는 능지처참하고 장쇠는 목매어 죽인다. 하지만 배좌수는 원혼의 소원대로
방면한다.

부사는 친히 연못 물을 퍼내고 시체를 인양하는데 장화와 홍련의 시체가 섞지 않고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장화와 홍련의 시체가 원한
때문에 썩지 않았다고 여긴다.

부사는 이 장화와 홍련을 명산에 안장하고 묘비까지 세워준다. 그날 밤 부사 꿈속에 두
처녀가 나타나 은공을 백배 사례하며 미래에 높은 관직이 오르리라 예언하고 물러간다.
과연 그 후 부사는 승진하여 통제사에 이르고 배좌수는 윤광호의 딸에게 다시 장가드니
장화와 홍련이 쌍둥이 자매로 환생하게 된다. 그 후 장성하여 평양 거부(巨富)
이연호의 쌍둥이 형제와 혼인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며 군자를 숭상하니 아들딸
많이 낳고, 자손이 복을 누리며 번성한다.